



농림수산식품부

닭·오리 등에 대한 수매 또는 차액보전 대책

농림수산식품부는 AI 관련 이동제한 지역의 닭·오리 등 사육농가가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 지역내의 닭·오리 등에 대한 수매 또는 차액보전 대책을 지난 4월 14일 시·도 등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동 대책은 이동제한 지역 농가로서 계열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일반농가가 생산한 가금과 그 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닭·오리는 원칙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수매당일 전주의 산지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수매하되, 농협중앙회 이외의 자가 이동제한 지역의 닭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매기준가격과 실제 수매가격간 차액을 농가에 지원한다.

구입가격은 농협중앙회, 구입자, 농가대표 등이 협의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이동제한 농가의 경영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닭, 오리, 계란 등은 안전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조〉 체화 가금산물 해소 대책

- 육계(토종닭 포함), 오리 등 가금류
 - 계열화농가를 제외한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를 원칙으로 하되, 차액보전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 차액보전 실시

수매 : 농협중앙회(수매 대행)

- 수매가격 : 수매당일 전주의 주간 산지가격 평균
- 도축장 선정 및 육계 일반농가 확인은 양계협회, 계육협회와 협의하여 결정

차액보전 : 농협중앙회(차액보전 대행)

- 지급차액(기준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을 양계농가에 지원
 - 기준가격 : 구입당일 전주의 주간 산지가격 평균
 - 구입가격 : “구입가격 결정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 농림수산식품부 승인 이동제한지역 닭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주관기관에 신청

□ 가금류의 알 : 시·군(차액보전 대행)

- 시중유통 가격과 유통업자 구매희망 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지원(차액은 2006년과 같은 기준가격 대비 35%)
 - 농가는 책임판매후 증빙서를 첨부 시·군에 차액 신청

연중 상시 AI 방역시스템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5일 21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정운천 장관 주재 하에 현재 AI 발생 상황 및 방역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 진단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장관을 비롯해 제1, 제2차관 등 농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 그리고 서울대 수의대 김재홍 교수, 충남대 수의대 모인필 교수 등 학계의 AI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11월에서 2월까지 실시해오던 오리에 대한 혈청검사 등 AI예찰시스템을 연중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검사가 가능한 전국 9개 대학과 협력하여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해당 대학 및 관계 전문가와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 9개 대학 : 서울대, 건국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아울러, 시발생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소규모 중개상이나 농가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닭, 오리, 계란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이 날 참석한 농식품부 김창섭 동물방역팀장은 농장에서 기르던 닭·오리가 시 증상을 보일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면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어 가축이 살처분되더라도 시가의 100%를 보상받고, 일정기간 후 가축 재입식이 필요한 자금을 저리(3%, 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에게 의심축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방역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 행정 본격 시동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전 직원이 비상근무 중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정운천 장관, 정승 식품산업본부장 등 농림수산식품부 간부 및 강문일 원장을 비롯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3개 기관 과장급 이상 간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운천 장관은 강문일 검역원장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역업무 및 식품안전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그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했으며, 지속적인 식품안전 사고 발생으로 아직도 소비자는 식품안전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했다.

정운천 장관은 같은 날 인천공항 청사 내에서 진행된 「제7기 청소년동물검역홍보도우미 발대식」 행사에 참석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함을 역설했다. 이 날 참석한 인천공항중학교 학생 30여명과 인솔교사 등과 일일이 악수와 격려를 하고 앞으로도 많은 협력과 도움을 부탁했다.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직접 농축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농약 등 위해물질의 관리 및 이동 경로 등 상세한 이력을 가정이나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확인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2005년부터 3년간에 걸쳐 총 178억원을 투입하여 농·축·수산물의 안전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www.agros.go.kr)의 구축을 올해 4월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추출·분석 및 공동 활용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산물검사원/과학원, 식약청 등에서 생성된 GAP, 이력추적, HACCP, 농약DB, 독성정보, 식품위해기준, 오염물질허용기준 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고 연간 약 18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국내 식품안전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본 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와 함께, 다양한 안전정책 및 홍보·교육지원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 시작으로, 식품관련 학계 및 소비자단체 주요 인사들을 초대하여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완

료보고회 및 식품안전 발전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 위령제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4월 4일 인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동물 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번 동물 위령제는 실험동물 위주로 진행되었던 지금까지의 수훈제와는 달리 인간을 위해 희생된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동물보호과 주관으로 희생 동물들에 대한 묵념, 진혼문 낭독, 헌화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100여명의 검역원 직원들이 참가하여 희생 동물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가 되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동물 위령제를 계기로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및 동물의 과학적·윤리적 사용을 소중하게 여기는 연구문화 조성 및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조직 및 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사육단계(닭농장) HACCP 평가기준 설명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닭농장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닭농장 현장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안)을 조기에 완료하고 지난 3월 28일 검역원에서 협회, 업계, 농가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닭농장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HACCP 제도와 닭농장 평가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안)은 선형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으로 구분하여 가축사육단계부터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닭 평가기준(안)은 육계와 산란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검역원은 닭농장 HACCP 적용확대를 위해 개발된 평가기준(안)을 축산물HACCP고시 개정(2008.6월말)이전이라도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닭농장에 한하여 HACCP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평가기준은 검역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고시개정 이전에 현장 보완사항 등이 있을 경우 개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검역원은 이번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닭농장 평가기준(안) 개발 및 적용으로 관련분야의 HACCP 저변확대와 국민 주요 식품인 닭고기와 계란의 품질과 안전성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닭 사육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HACCP작업장등(축산물·사료·농장) 지정현황〉 (2007. 3. 26)

합계	축산물						배합사료	농장	
	소계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식육판매업		돼지	소
865	694	39	475	134	13	33	68	86	17

베트남 농업진흥부와 연구협정서 교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월 28일 베트남 농업진흥부와 아시아 지역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연구협정서를 교환

했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악성 가축질병 공동대응을 위한 연구협력 협정(MOU)체결로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 전염병에 대한 공동 퇴치 및 향후 가축방역에 대하여 국가간 효율적인 공동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문일 원장은 “이번 베트남과의 연구협정서 교환을 통해 국내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질병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금년 하반기부터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공동연구가 수행되어 향후 해당 질병 전문가들의 상호 방문 및 기술교류를 통해 최신 연구와 방역정보 등도 교환될 예정이다.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에 대한 최신진단기술 보급 및 연수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IITE(세계동물보건기구) 등으로 부터 우리나라의 동물질병 연구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대한 효과도 기대된다.

HACCP 평가기준 설명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월 26일 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HACCP 적용 업소 및 적용하고자 하는 업소 관계자, 컨설팅 업체 등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역원 대강당 1층 세미나실에서 “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HACCP 평가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고시로 운용중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집유업·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HACCP 평가기준 전반에 대하여 HACCP 적용 업소 및 희망업소 관계자와 컨설팅 업체 등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의 HACCP 지정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HACCP 개요, HACCP 지정 절차, 시설기준 등 선행요건프로그램, HACCP 관리 등 HACCP 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설명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하여 영업자가 시설기준, 온도관리 등 HACCP 적용 및 운용에 대한 평소 업소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 작년 11.27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으로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가축사육단계(소농장)는 HACCP 적용 가능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소는 HACCP 중요성을 인식하고 HACCP 평가기준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원유 처리단계인 집유업과 축산물 유통단계인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의 HACCP 적용 확대를 통하여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HACCP기준원

제주대학교와의 MOU 체결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신태균)과 '축산물 위생 관련 정보의 상호이용 및 협력과 축산물HACCP에 관한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 교환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
 - 축산물 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학술, 기술정보의 상호이용 및 교환
 - 위생관리 및 위생검사의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 위생관리기법 개발 등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 축산물HACCP 교육관련 업무 협조
 - 기타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업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

축산물HACCP기준원의 곽형근 원장은 "이번 7차 제주대학교와의 MOU 체결로 전국 주요 거점에 HACCP 확대 및 HACCP 교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전한 축산물 제공 및 소

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창립 19주년 기념 및 지식경영 선포식 개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4월 18일 창립 19주년을 맞이하여 창립기념 행사 및 고객가치창조를 위한 지식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자단체, 축산 단체장, 전임소장, 업계 원로 및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창립경과보고와 함께 유공직원 표창 및 유공업체에 대한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국내축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등급판정사업을 시작한 이래 19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소, 돼지고기의 고급화에 성과를 거두었으며, 닭고기와 계란까지 등급판정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닭고기등급판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리부로 김인식회장과 쇠고기

이력제 시범사업부터 돼지고기의 육질등급표시까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주)신세계 이마트 이경상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번 선포식의 주된 내용은 고객의 가치창조를 위하여 전 직원이 '오늘의 Reader! 내일의 Leader!' 라는 슬로건으로 보다 폭넓은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에 대한 결심이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지금, 축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번 선포식을 통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전 직원은 고객의 가치창조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 고객의 가치창조와 축산물등급제의 가치가 'WIN-WIN'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행정안전부

AI 방역대책비 1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전북 김제, 정읍지역 등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소독 약품 구입, 자동소독시설 운영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속하고 완벽한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물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소식

■ 농림수산물식품부

• 2008년 4월 1일자

〈국장급 전보〉

○ 농촌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유병린

〈과장급 전보〉

○ 감사담당관

서기관 윤달상

• 2008년 4월 7일자

〈위촉장 수여〉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1급이상 이상무

• 2008년 4월 10일자

〈장관정책보좌관 신규임용〉

○ 장관정책보좌관

전문계약직(가급) 김혜준

○ 장관정책보좌관

전문계약직(가급) 탁명구

• 2008년 4월 15일자

〈고위공무원 전보〉

○ 농림수산물식품부

서기관 남동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2008년 4월 15일자

○ 축산물검사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손찬준

○ 질병관리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주호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과장

서기관 김부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08년 4월 15일자

○ 경남지원장

서기관 윤기호